

지역 소식통

군산시립도서관, 김종혁 작가 초청 특강 운영

군산시민에게 창의적이고 즐겁게 글쓰는 방법에 다가갈 수 있는 초청 특강이 열리며 문필을 펼치고 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오는 22일 오후 7시, 소설가 김종혁 작가를 초청, 3과 글쓰기 : 창의적이고 즐겁게 글쓰는 방법'을 주제로 지역주민들과 교감하는 소통의 시간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는 동인문학상, 심문문학대상 등 많은 수상경력 뿐 아니라, 책나눔 문화포스코인 북유령, 트로센터리 방승민 대화의 화형 등 많은 방송 활동을 했으며, 최근까지 '딜리터(2022)', '스마일(2022)', '오늘 딱 하루만 잘 살아 볼까?'(2021) 등 다수의 도서를 집필했다. 올해 첫 번째로 준비한 이번 강연은 관객들이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강연이 아니라, 숫자놀이를 통한 창의적인 글쓰기, 5개 단어 가운데 랜덤으로 선택한 단어로 문장만들기 등 관객들이 강연에 직접 참여해 즐겁고, 작가와 관객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호응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강연이 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현장 참여 뿐만 아니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익한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현장 강연 참여자 접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로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산시립도서관 도서관총괄(☎454-5330)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일상의 여유를 찾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부안읍, One-stop 민원 서비스 통합창구 운영

부안읍사무소 민원팀은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를 한 곳의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One-stop 민원서비스 통합창구를 운영해오고 있다. 부안읍사무소 민원팀 직원들은 업무별 매뉴얼을 숙지하고, 민원인의 다양한 사례들을 수시로 피드백하고 공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One-Stop 민원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로써 주민등록 등초본, 어디서나민원, 전입신고·전입세대열람, 인감·본인서명 발급업무는 민원팀의 민원창구 어느곳에서나 가능하다. 또한 민원인 전용 팩스·복사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놓고 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간접하게 보내게 될 때 예외사항이 많은데, 특히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즉시 원하는 곳에 무료로 편하게 보낼 수 있으며, 전송방법을 어려워하는 민원인들에게 전송방법도 안내해 드린다. 다만 부안읍 민원팀 직원들은 민원창구에 한꺼번에 민원인들이 몰릴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실 것을 안내해 드린다. /부안=김석진 기자

글로벌 강소기업 생태계 구축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 지원비 증액·기업 선정 등 지원 확대... 4월 7일까지 신청접수

군산시가 성장가능성이 높고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유망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시는 8월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고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 부흥을 이끌 유망한 기업 발굴과 성장 유도를 위해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풍부한 유망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군산은 도내 시군 최초로 시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관내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성장 유도를 위해 유망 강소

기업의 맞춤형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지난 3년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한 유망 강소기업 중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 일부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8월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신청 접수 후 1단계 서류 및 현장평가와 2단계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유망 강소기업 3개사, 강소기업 3개사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분사(공장)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창업한 지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지식 기반 서비스업 중 제조업 기업 중 최근 3년결산 매출액이 400억원 미만이며 강소기업 신청 자격은 기존 유

망 강소기업에서 선정되어 3년간 지원이 끝난 기업이다.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시 제품 제작 공정개선, 국내외 마케팅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5천만원을 3년간 매년 지원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3천만원을 1년간 지원받게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은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있다. 최근 기업부설연구소 등 R&D 역량을 갖춘 기업이 대폭 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며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한 관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격려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하늘 위 응급실' 닥터헬기 인계점 7개소 운영

고창군, 공설운동장·선운사잔디광장·대산 체육센터·흥덕중·해리중·무장 영선고·무장초 등

전북 고창군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인계점 7곳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창군의 인계점 지정 장소는 고창 공설운동장, 선운사잔디광장, 대산변 농어민체육센터, 흥덕중학교, 해리중학교, 무장 영선고등학교, 무장초등학교이다. 인계점으로 지정된 2018년 이후 총 73건의 출동 요청 건이 있었다. 닥터헬기는 전라북도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응급상

황이 발생하면 출동요청 자격을 갖춘 의료인, 119급대원 등의 요청으로 최초 신고 접수가 이뤄진다. 이후 환자의 상태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지상이송보다 항공이송이 효과적인 경우 닥터헬기의 출동이 결정되며, 인계점에서 헬기 이륙 후 원광대학교병원까지 15~20분 정도 소요된다. 닥터헬기는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용헬기로 응급처치에 필요한 전문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탑재하고

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가 탑승해 이송 중 응급진료를 수행하고 있어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린다. 고창군 유병수 보건소장은 "닥터헬기는 3차 병원까지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여 군민 생명 지키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닥터헬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인계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산시,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계기관 간담회 추진

군산시가 수산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유관기관이 모여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시는 지난 3일 수산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주관하고, 법무부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시 가족센터, 한국김장생산자 연합회 민선사자부, 전년도 고용허가 등 관계기관 및 어업인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외국인 관련 업무 현황 및 외국인 관리·고용 등에 대한 예외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



조와 노력을 통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해당 사업은 작년 전국 최초 해조류 해면양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김양식 현장에 실제 투입돼 운영했다. 올해에는 도입 인원과 분야를 수산물 가공업까지 확대하고 하반기 근로 기간 만료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시 관계자는 "단기간 일손이 집중되는 수산분야에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선안 마련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산물 가공분야 확대에 따라 우리시 우호도시와 MOU 체결을 통해 대규모 외국인 인력을 수급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고창군, 현수막 지정계시대 사용료 27% 대폭 인하

전북 고창군이 현수막 지정 계시대 사용료를 대폭 낮췄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고창군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고창군 지정 현수막 사용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고창군은 불법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총 101개소(6만평 52개소, 저단형 49개소) 현수막 지정계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1주 사용료는 기존 1만8000원에서 1만1800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이의 군은 옥외광고협회와 불법 현수막 근절 방안 등도 논의했다. 군은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상습적으로 계집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한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에 나설 방침

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물과 고질적 광고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광고 부담을 완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천년의 숨씨 신동진쌀 TV홈쇼핑 전국 판매

부안군이 TV홈쇼핑 유통망을 활용하여 지역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에 나섰다. 군은 2023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 사업'에 계획농업협동조합이 선정돼 방송 송출료 및 영상 제작비용을 지원 받아 천년의숨씨 신동진쌀'을 공영홈쇼핑 방송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천년의숨씨 신동진 쌀' 홈쇼핑 방

송은 오는 10일 오후 2시 50분부터 공영홈쇼핑에서 50분간 방송되며, 이날 방송에서는 신동진 쌀 10kg+10kg 상품에 기존 가격보다 12% 할인된 가격인 55,900원에 판매한다. 부안 '천년의숨씨 신동진 쌀'은 2018년까지 6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하고 GAP 인증을 받아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쌀로, 다른 품종에 비해

쌀알이 크고 굵어 밥알이 부스라지지 않고, 밥맛이 살아있는 점이 특징이다. 권오범 축산유통과장은 "이번 홈쇼핑 방송을 통해 부안군의 명품 쌀 천년의 숨씨'를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경제적 부담 완화되길 바래"

정읍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보건 위생용품' 지원

정읍시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9세~24세 여성 청소년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님 등 주 양육자가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에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www.bokji.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

이 생기지 않는 한 24세까지 매월 13,000원(연 최대 156,000원)이 보건 위생용품 바꾸처(국민행복카드) 형식으로 지원된다. 바꾸처는 신청한 월부터 연말까지 발급 카드사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매 가능한 품목은 일회용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시중에 판매되는 보건 위생 물품으로 개인 기호에 맞는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출생신고 가정 축하기념품 증정

정읍시는 장기적인 저출산 현상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신생아에게 축하기념품을 제공하는 출생 축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출산을 함께 축하하며 새로운 가족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이불과 베개, 패드로 구성된 친환경 아기 이불 세트를 출생 기념품으로 증정한다고 밝혔다. 증정 대상은 출생신고일 현재 정읍시에 주소록을 둔 신생아로 태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출생자여야 한다. 출생신고 시 거주지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1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출생기념에 출생 축하 용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과 유아용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출생 축하 기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539-5353) 또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정읍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대대적 가지치기 가로환경 정비 나서

도시 경관의 핵심 요소로 가로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가로수 가지치기 등 대대적인 가로환경 정비에 나선다. 시는 오는 8월부터 23일까지 총정리로, 남북로, 전변로 3개 노선의 은행나무 총 476그루를 가지치기해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피해를 주는 가로수를 중심으로 가로수의 수형을 다듬고 가지를 숙여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작업 대상은 총정리로 제1고 사거리~대림아파트 사거리 구간 남북로 삼골다리~제1고 사거리 구간, 전변로 시기주공아파트 앞 가로수다. 차량 통행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남북로 구간부터 우선 진행할 예정이며, 자연 수형을 고려해 속가지를 제거하



고 높이를 조절해 가로 미관을 보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작업을 통해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은 물론, 가을철 열매와 열매갈라짐이 줄어들어 낙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간판 기점으로 인한 민원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과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로 더 나은 가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시, 농촌관광시설 철저한 점검 안전 확보

군산시가 농어촌 민박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 등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안심하고 농촌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점검결과 안전사고관리, 위생관리, 코로나19 대응, 운영 체계에 이상 없었지만 화재안전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시설이 있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양원민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화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